

한국 패션디자인·미학 분야의 연구동향

- 「복식」(2001~2010)을 중심으로 -

최 해 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 패션디자인전공

A Survey on the Research Trends of Fashion Design · Aesthetic Field in Korea

- Focused on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2001~2010) -

Hae-Joo Choi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Hansung University

(투고일: 2011. 12. 15, 심사(수정)일: 2012. 3. 7, 게재확정일: 2012. 3. 31)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research trends of subject matter in fashion design · aesthetic field in clothing and textiles and to suggest the information for the future directions for fashion business and research. 1089 articles with clothing and textiles subject matter, 523 articles with fashion design·aesthetic field in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stume from 2001 through 2010 were analyzed.

The major conclusions of the study are as the following:

1. Fashion design·aesthetic field took absolute majority in the researches of the clothing and textiles in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stume, in the 2000s. 2. Fashion design·aesthetic field showed more proportions in the latter half of the decade. 3. History of costume, fashion marketing field were followed. Textiles science field took extremely little proportion. 4. In fashion design·aesthetic field, topic of fashion design elements and types took absolute majority. 5. Fashion aesthetics, fashion design development, makeup·hair style topics were followed.

Key words: fashion aesthetic(패션미학), fashion design(패션디자인),
fashion design development(패션디자인 개발),
fashion design elements and types(패션디자인 요소와 유형),
makeup · hair style(메이크업·헤어스타일)

I. 서론

한국의 섬유·패션산업은 수출 견인 산업으로¹⁾, 한국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오고 있는 주력기간 산업이다.²⁾ 한국의 섬유 수출은 세계 시장에서 2000년 세계 4위, 2008년 세계 6위, 2009년 세계 7위, 2010년 세계 8위를 차지하였다.³⁾ 2000년 우리나라 10대 수출품목에서 의류는 8위, 인조섬유는 9위를 나타냄으로써⁴⁾ 섬유·패션산업이 국내 산업 중 수출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1세기에 들어와 사회가 더욱 글로벌화, 정보화되고 소비자의 욕구도 개성화, 다양화, 세분화됨에 따라 패션산업이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시장에서도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가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관련 분야의 심도있는 연구와 실력을 갖춘 전문인의 육성이 확립되어야 한다.

학술지는 관련분야의 학문적 성과와 함께 시대적 요구와 발전정도를 반영하므로 섬유·패션 산업과 관련된 의류학 분야의 연구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연구방향을 확인하고 패션산업에 대한 기여도를 살펴보는 것은 미래의 의류학의 연구방향과 패션 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미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의류학 분야를 분석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의류학 연구 경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의류학 전반을 대상으로 여러 학회지를 분석한 연구, 동일 학회지를 창간호부터 분석한 연구, 연구 영역별로 분석한 연구 등이 있다.

정찬진 외⁵⁾는 「대한가정학회지」, 「한국의류학회지」, 「복식」에 창간호부터 1990년까지 게재된 의류학 관련 논문들을 대상으로 의류학 연구의 역사적 흐름을 분석하였고, 김정호⁶⁾는 「복식」, 「한국의류학회지」를 대상으로 1990년부터 1998년까지의 의류학 연구분야의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나수임 외⁷⁾는 1991년부터 1999년까지의 의류학의 연구 경향의 흐름을 분석하였다.

동일 학회지를 창간호부터 분석한 연구로는 성화경 외⁸⁾가 「한국의류학회지」를 대상으로 1977년부터 1992년까지 게재된 논문의 연구주제, 저자, 참고문헌

등을 분석하였고, 이미숙⁹⁾이 「복식」을 대상으로 1977년부터 2001년까지 게재된 논문의 연구분야, 연구방법, 저자, 참고문헌수 등을 분석하였다.

의류학의 연구분야별로 고찰한 연구로는 김미자¹⁰⁾가 한국복식분야를, 김효숙¹¹⁾이 의복구성분야를, 이해영, 이인자¹²⁾가 복식사회·심리학분야를, 이유리, 이미영¹³⁾이 패션마케팅 분야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으며, 분야별 고찰의 경우 학회지 이외의 석·박사논문 등이 연구대상으로 포함되기도 하였다.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대한가정학회지」, 「복식」, 「한국의류학회지」, 「복식문화연구」 등을 대상으로 하여 1959년부터 2006년까지의 연구 논문을 기간별, 분야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분야별로 고찰한 연구의 경우 패션디자인·미학분야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선행연구에¹⁴⁾ 의하면, 패션디자인·미학분야는 1990년대 특히 후반기 이후 의류학연구분야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특히 「복식」에 가장 활발하게 연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복식」(2001~2010)을 대상으로 최근 가장 연구비중이 높은 패션디자인·미학 분야에 대한 세부 연구 주제를 고찰하여 패션디자인·미학분야의 연구동향을 분석함으로써 미래의 패션디자인·미학분야의 연구방향과 패션산업에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국내 의류학 전문 학술지 중의 하나인 한국복식학회에서 발행하는 「복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복식」은 1975년에 설립된 한국복식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로 1977년에 창간호가 발간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복식전공분야의 대표적인 전문학술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1년부터 2010년 60권 10호까지 총 90권에 게재된 1089편의 논문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 의류학 연구분야의 분류체계

의류학 연구현황을 다룬 선행연구의 연구결과와 학술대회의 연구분야를 참조하여 의류학 연구분야를 분류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분류한 의류학의 연구분야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에 의하면 연구자에 따라 의류학의 연구분야를 기타분야를 포함하여 7~10분야로 분류하였다.

의류학의 연구분야로 복식의장학, 복식미학/디자인, 복식사, 한국복식사, 서양복식사, 복식문화, 의복구성, 의복구성학, 의류상품, 의류상품학, 패션마케팅, 의상사회심리, 의상사회심리학, 의복사회심리, 복식사회심리, 피복과학, 의복과학, 피복재료, 피복위생, 기타의 분야명칭이 사용되었다.

최근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분류하는 연구분야를 살펴보면, 한국복식학회의 경우, 복식사, 복식미학·디자인, 한국복식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의류학회의 경우 패션마케팅, 의복구성, 피복과학, 복식미학·디자인, 한국복식으로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류기준과 학술대회 연구분야를 참조하여 연구분야를 분류 선정하였다. 연구분야 명칭은 유사분야의 경우 보다 최근에 사용 추세를 보이는 명칭을 사용하고, 본 연구 결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를 우선순위로 하여 명칭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류학 연구분야를 패션디자인·미학, 복식사, 의복구성, 패션마케팅, 복식사회심리, 피복과학, 기타로 분류하였다(<표 1>).

패션디자인·미학분야의 연구주제 및 연구범위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복식의장학, 복식미학·디자인 분야의 연구범위를 참조하고, 본 연구의 논문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하여 선정하였다. 패션디자인·미학분야 관련분야의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연구 범위는 <표 2>와 같다.

선행연구의 복식의장학, 복식미학·디자인분야의 연구범위에는 복식디자인(디자인 요소와 원리, 컴퓨터디자인, 유행트렌드, 디자이너 연구), 복식미학(의복의 예술사조 및 문학, 미의 상징적 특징), 컴퓨터이용 디자인, 일러스트 연구, 화장·헤어스타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식」의 논문 분석 결과에 따라 2000년대의 패션디자인·미학 연구분야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구주제를 근거로 하여 복식디자인 연구주제를 패션디자인 요소와 유형으로 구체화시키고, 패션디자인 개발 연구주제를 새롭게 포함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주제 및 연구범위는 패션디자인

<표 1> 의류학의 연구분야의 분류체계

| 연구자 | 년도 | 분석기간 | 논문수 | 검토학회지 | 연구 분야 |
|-------|------|-----------|------|------------------------------------|---|
| 정찬진 외 | 1991 | 1959-1990 | 620 | 대한가정학회지 한국의류학회지 복식 | 피복과학, 복식사, 의상사회심리, 의복구성, 의류상품, 복식의장학, 기타 |
| 심화경 외 | 1994 | 1977-1992 | 383 | 한국의류학회지 | 복식사회심리, 피복재료, 의복구성학, 피복정리, 피복위생, 의류상품학, 한국복식사, 복식의장학, 서양복식사, 기타 |
| 김정호 | 1999 | 1990-1998 | 1131 | 한국의류학회지 복식 | 복식사, 의복과학, 복식의장학, 의복사회심리, 의류상품학, 의복구성학 |
| 나수임 외 | 2000 | 1991-1999 | 1690 | 대한가정학회지 한국의류학회지 복식 복식문화연구 | 복식의장학, 의류상품학, 피복과학, 의복구성학, 복식사, 복식문화, 의상사회심리학, 기타 |
| 이미숙 | 2002 | 1977-2001 | 892 | 복식 | 복식사, 복식미학/디자인, 패션마케팅, 의복구성학, 의상사회심리, 피복과학, 기타 |
| 최해주 | 2012 | 2001-2010 | 1089 | 복식 | 패션디자인·미학, 복식사, 패션마케팅, 복식사회심리, 의복구성, 피복과학, 기타 |

〈표 2〉 패션디자인·미학 관련분야의 연구범위

| 연구자 | 년도 | 명칭 | 연구범위 |
|-------|------|----------|--|
| 정찬진 외 | 1991 | 복식의장학 | 복식디자인(디자인 요소와 원리, 컴퓨터 디자인), 복식미학(의복과 예술사조 및 문학, 미의 상징적 특징) |
| 성화경 외 | 1994 | 복식의장학 | 미학 포함 |
| 김정호 | 1999 | 복식의장학 | 복식디자인, 컴퓨터이용 디자인, 복식미학(예술사조, 건축양식, 문학과 의복) |
| 나수임 외 | 2000 | 복식의장학 | 복식디자인(디자인 요소와 원리, 컴퓨터 디자인, 유행트렌드, 디자이너 연구), 복식미학(의복의 예술사조 및 문학, 미의 상징성), 일러스트 연구, 메이크업·헤어스타일 |
| 이미숙 | 2002 | 복식미학·디자인 | - |
| 최해주 | 2012 | 패션디자인·미학 | 패션디자인 요소와 유형, 패션디자인 개발, 패션미학, 패션일러스트레이션, 패션디자인CAD, 메이크업·헤어스타일 |

인 요소와 유형, 패션미학, 패션디자인 개발, 패션일러스트레이션, 패션디자인CAD, 메이크업·헤어스타일 등으로 선정하였다.

3. 자료의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년도별, 연구분야별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패션디자인·미학분야를 연구주제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자료의 통계적 분석방법으로는 빈도, 백분율 등의 기술통계를 사용하였으며 분포도와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원형차트와 막대그래프로 제시하였다.

Ⅲ. 패션디자인·미학의 연구 동향

1. 「복식」의 분야별 연구현황

1) 년도별 발행현황

「복식」의 2000년대 년도별 발간현황은 〈표 3〉과 같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발간된 「복식」의 논문 편수는 총 90권에 1089편이 게재되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8권씩 발간되었으며 2001년, 2002년에는 10~14편씩 게재되었고 2003~2005년에는 12편씩 게재되어 2001년 51권부터 2005년 55권까지 40권에 게재된 총 논문 수가 482편이었다. 전반

〈표 3〉 2000년대 「복식」의 년도별 발행 현황

단위 : 편수(%)

| 번호 \ 년도 (권) | 2001 (51) | 2002 (52) | 2003 (53) | 2004 (54) | 2005 (55) | 2006 (56) | 2007 (57) | 2008 (58) | 2009 (59) | 2010 (60) |
|-------------|-----------|-----------|-----------|-----------|-----------|-----------|-----------|-----------|-----------|-----------|
| 1 | 13 | 11 | 12 | 12 | 12 | 12 | 14 | 12 | 12 | 10 |
| 2 | 14 | 12 | 12 | 12 | 12 | 12 | 14 | 12 | 12 | 10 |
| 3 | 12 | 14 | 12 | 12 | 12 | 12 | 14 | 12 | 12 | 10 |
| 4 | 11 | 13 | 12 | 12 | 12 | 12 | 14 | 13 | 12 | 11 |
| 5 | 11 | 13 | 12 | 12 | 12 | 12 | 14 | 15 | 12 | 10 |
| 6 | 11 | 12 | 12 | 12 | 12 | 12 | 14 | 13 | 12 | 10 |
| 7 | 10 | 12 | 12 | 12 | 12 | 12 | 12 | 12 | 12 | 10 |
| 8 | 13 | 12 | 12 | 12 | 12 | 12 | 12 | 13 | 12 | 11 |
| 9 | - | - | - | - | - | 12 | 13 | 13 | 12 | 12 |
| 10 | - | - | - | - | - | 12 | 13 | 12 | 12 | 12 |
| 합계 | 95 | 99 | 96 | 96 | 96 | 120 | 134 | 127 | 120 | 106 |

기에는 2002년에 99편으로 가장 많이 게재되었고 2001년에 95편으로 가장 적게 게재되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10권씩으로 증가되어 발간되었으며, 2006년에는 12편씩 게재되었고 2007년에는 13~14편씩, 2008년에는 12~15편씩, 2009년에는 12편씩, 2010년에는 10~12편씩 게재되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50권에 607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후반기에는 2007년에 134편으로 가장 많이 게재되었으며 2008년에는 최대 15편까지 게재되기도 하였으나 2008년부터 게재율이 저하되었으며 2010년에 106편으로 가장 적게 게재되었다.

종합하면, 2000년대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더 많은 논문이 게재되었고 2007년에 가장 많은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2008년부터 게재율이 저하되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복식』 창간호(1977년)부터 2001년까지 25년간 게재된 논문이 총 65권 892편이

며,¹⁵⁾ 『한국의류학회지』 창간호(1977년)부터 1992년까지 16년간 게재된 논문이 총 44권 383편이고¹⁶⁾ 1990년대(1990~1998년)에 게재된 논문이 『복식』은 28권 472편, 『한국의류학회지』는 49권 659편으로 두 학회지 게재 논문편수가 총 1131편이었다. 2000년대(2001~2010) 10년간 『복식』에 게재된 논문편수가 총 90권 1089편이므로, 선행연구 자료와 비교하면 2000년대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의류학의 연구분야별 분포 및 변화추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복식』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한 결과에 의한 의류학 연구분야의 년도별 분포는 <표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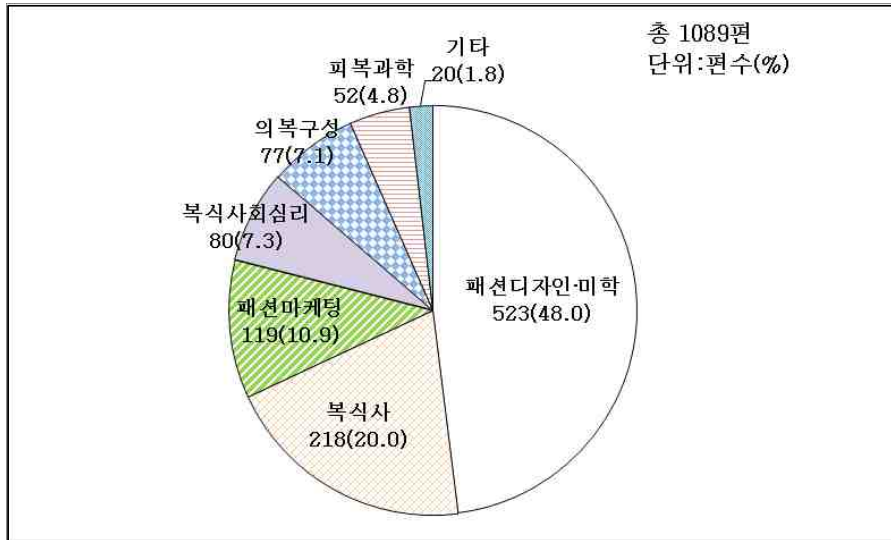
<그림 1>은 <표 4>에 나타난 연구분야별 10년간 논문편수의 합계를 기준으로한 연구분야별 분포도를

<표 4> 『복식』의 의류학 연구분야의 년도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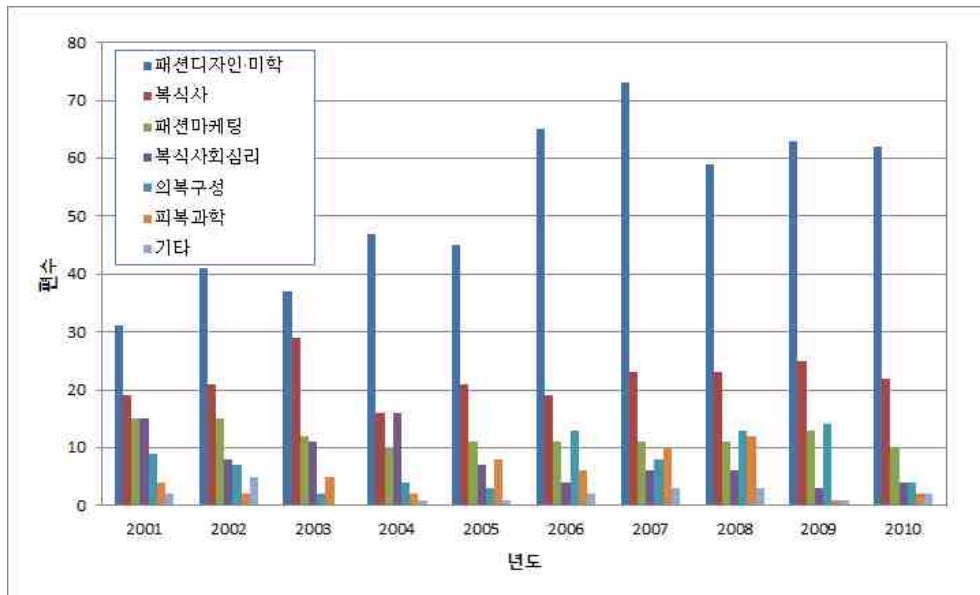
단위 : 편수/(%)

| 연도 | 연구분야 패션디자인·미학 | 복식사 | 패션마케팅 | 복식사회심리 | 의복구성 | 피복과학 | 기타 | 합계 |
|------|-------------------|-------------------|-------------------|-------------------|-------------------|------------------|-----------------|-------------------|
| 2001 | 31 (5.1/32.6) | 19 (8.7/20.0) | 15 (12.6/15.7) | 15 (18.7/15.7) | 9 (11.6/9.4) | 4 (7.6/4.2) | 2 (10.0/2.1) | 95 (8.7/100) |
| 2002 | 41 (7.8/41.4) | 21 (9.6/21.2) | 15 (12.6/15.1) | 8 (10.0/8.0) | 7 (9.0/7.0) | 2 (3.8/2.0) | 5 (25.0/5.0) | 99 (9.1/100) |
| 2003 | 37 (7.0/38.5) | 29 (13.3/30.2) | 12 (10.0/12.5) | 11 (2.7/11.4) | 2 (2.5/2.0) | 5 (9.6/5.2) | 0 (0.0/0.0) | 96 (8.8/100) |
| 2004 | 47 (8.9/48.9) | 16 (7.3/16.6) | 10 (8.4/10.4) | 16 (13.7/16.6) | 4 (5.1/4.1) | 2 (3.8/2.0) | 1 (5.0/1.0) | 96 (8.8/100) |
| 2005 | 45 (8.6/46.9) | 21 (9.6/21.8) | 11 (9.2/11.4) | 7 (8.7/7.2) | 3 (3.8/3.1) | 8 (15.3/8.3) | 1 (5.0/1.0) | 96 (8.8/100) |
| 2006 | 65 (12.4/54.2) | 19 (8.7/15.8) | 11 (9.2/9.1) | 4 (5.0/3.3) | 13 (16.8/10.8) | 6 (11.5/5.0) | 2 (10.0/1.6) | 120 (11.0/100) |
| 2007 | 73 (13.9/54.5) | 23 (10.5/17.1) | 11 (9.2/8.2) | 6 (7.5/4.4) | 8 (10.3/5.9) | 10 (19.2/7.4) | 3 (15.0/2.2) | 134 (12.3/100) |
| 2008 | 59 (11.2/46.5) | 23 (10.5/17.1) | 11 (9.2/8.6) | 6 (7.5/4.7) | 13 (16.8/10.2) | 12 (23.0/9.4) | 3 (15.0/2.3) | 127 (11.7/100) |
| 2009 | 63 (12.0/52.5) | 25 (11.5/20.8) | 13 (10.9/10.8) | 3 (3.7/2.5) | 14 (18.1/11.6) | 1 (1.9/0.8) | 1 (5.0/0.8) | 120 (11.0/100) |
| 2010 | 62 (11.8/58.5) | 22 (10.0/20.7) | 10 (8.4/9.4) | 4 (5.0/3.7) | 4 (5.1/3.7) | 2 (3.8/1.8) | 2 (10.0/1.8) | 106 (9.7/100) |
| 합계 | 523 (100/48.0) | 218 (100/20.0) | 119 (100/10.9) | 80 (100/7.3) | 77 (100/7.1) | 52 (100/4.8) | 20 (100/1.8) | 1089 (100/100) |

백분율 : 연구분야내의 기간별% / 기간내의 연구분야별%



〈그림 1〉 '복식'의 의류학 연구분야별 분포도 (2001~2010)



〈그림 2〉 '복식'의 의류학 연구분야 년도별 추이

원형차트로 나타낸 것이다. 의류학 연구분야의 년도별 변화추이는 〈그림 2〉의 막대그래프로 나타내었다.

2000년대 10년간 가장 많은 연구 비율을 나타내는 분야는 패션디자인·미학분야이며 총 523편으로

48.0%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이 복식사분야로 총 218편 20.0%이며, 패션마케팅분야가 119편 10.9%, 복식사회심리분야가 80편 7.3%, 의복구성분야가 77편 7.1%, 피복과학분야가 52편 4.8%, 기타분야가 20

편 1.8%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패션디자인·미학분야는 1980년대까지는 다른 연구분야에 비해서 대체로 낮은 연구경향을 보였다.¹⁷⁾ 1990년대에 들어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1990년대 후반기에 근소한 차이로 1위의 연구경향을 나타내었다.¹⁸⁾

2000년대에는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더 많은 연구경향을 나타내어 패션디자인·미학분야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 더욱 고조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적인 추세가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창의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복식」이 패션디자인·미학분야의 대표적인 학술지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복식사분야는 20.0%로 두 번째로 연구 비율이 높은데, 선행연구에 의하면 「복식」의 경우 1990년대 전반기까지 복식사분야의 연구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80년대까지의 게재율과 비교하면 1990년대 들어서서 게재율이 감소추세를 나타내었다.¹⁹⁾

복식사분야는 2000년대에는 10년 동안 대체로 비슷한 비율의 연구경향을 나타내었으나 패션디자인·미학분야에 비하여 절반 이하의 수준의 비율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는 2000년대에 들어서 타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관련분야의 전문학술지 확대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된다.

패션마케팅분야는 10.9%로 복식사분야의 절반정도 수준의 비율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복식사회심리분야는 7.3%로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패션마케팅분야는 「복식」뿐 아니라 타 학술지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²⁰⁾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에 많은 비중을 나타내었다.²¹⁾ <표 4>와 <그림 1>에 의하면 패션마케팅분야는 「복식」의 경우 1990년대 후반의 19.1%와²²⁾ 비교하면 2000년대에 들어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지는 않았다.

타 학술지의 경우 「복식」보다 더 높은 게재율을 나타내기도 하여²³⁾²⁴⁾ 학술지에 따라 전공영역별 선호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식사회심리분야는 1980년대 후반까지 증가율을

보였으나 1990년대 이후 감소추세를 나타내었다.²⁵⁾ 2000년대에 들어서도 대체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의복구성분야는 1960년대에 강한 연구추세를 보였으나 1970년 이후에는 연구의 양적 증가에 비해 연구의 강세가 약화되었다.²⁶⁾ 「복식」의 경우 1980년대보다 1990년대에 연구비율이 높으며,²⁷⁾ 2000년대에는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연구비중이 높으나 전반적으로 다른 연구 분야에 비해 연구 비율이 낮은 편이다.

피복과학분야는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6가지 분야 중 연구 비중이 가장 낮은 분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피복과학분야는 1980년대까지 전체 연구 분야 중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어진 분야라고 할 수 있으나,²⁸⁾ 「복식」의 경우에는 대조적으로 저조한 연구 비율을 나타내었다.²⁹⁾

2. 패션디자인·미학분야의 연구 주제별 동향

<표 5>는 의류학 연구 분야 중 가장 많은 연구비중을 나타낸 패션디자인·미학분야의 연구주제의 년도별 분포이다.

연구주제별로 10년간 논문편수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 연구주제별 분포도를 원형차트로 나타낸 것이 <그림 3>이다. <그림 4>의 막대그래프는 연구주제별로 년도에 따른 변화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패션디자인·미학분야의 연구주제 중 가장 큰 연구비중을 나타낸 주제는 패션디자인 요소와 유형이며 패션디자인·미학분야 전체 523편의 논문 중 199편 38.0%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이 패션미학으로 189편 36.1%이며, 패션디자인개발이 86편 16.4%, 메이크업·헤어스타일이 35편 6.7%,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이 12편 2.3%, 패션디자인 CAD가 2편 0.4%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패션디자인과 패션미학을 비교할 때 1990년대까지는 패션미학 연구주제의 연구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80년대까지 「대한가정학회지」, 「복식」, 「한국의류학회지」를 분석한 결과 패션미학 주제가 81.8%, 패션디자인 주제가 18.2%로 큰 차이를 나타내었으며,³⁰⁾ 1990년대에는 「대한가정학회지」, 「복식」, 「한국의류학회지」, 「복식문화연구」를 분석한 결과 패션미학 63.0%, 패션디

〈표 5〉 2000년대 '복식' 패션디자인·미학분야 연구주제의 년도별 분포

단위 : 편수/(%)

| 세부 전공 년도 | 패션 디자인 요소와 유형 | 패션미학 | 패션 디자인 개발 | 메이크업 · 헤어 스타일 | 패션 일러스트 레이션 | 패션 디자인 CAD | 합계 |
|----------------|---------------------|-------------------|-------------------|---------------------|-------------------|------------------|------------------|
| 2001 | 10 (5.0/32.2) | 17 (8.9/54.8) | 1 (1.1/7.2) | 1 (2.8/3.2) | 2 (16.6/6.4) | 0 (0.0/0.0) | 31 (5.93/100) |
| 2002 | 12 (6.0/29.2) | 16 (8.4/39.0) | 12 (13.9/29.2) | 0 (0.0/0.0) | 1 (8.3/2.4) | 0 (0.0/0.0) | 41 (7.84/100) |
| 2003 | 14 (7.0/37.8) | 11 (5.8/29.7) | 10 (11.6/27.0) | 2 (5.7/5.4) | 0 (0.0/0.0) | 0 (0.0/0.0) | 37 (7.07/100) |
| 2004 | 13 (6.5/27.6) | 19 (10.0/40.4) | 6 (6.9/12.7) | 5 (14.2/5.4) | 3 (25.0/6.3) | 1 (50.0/2.1) | 47 (8.99/100) |
| 2005 | 18 (9.0/40.0) | 19 (10.0/42.2) | 4 (4.6/8.8) | 3 (8.5/6.6) | 1 (8.3/2.2) | 0 (0.0/0.0) | 45 (8.6/100) |
| 2006 | 29 (14.5/44.6) | 25 (13.2/38.4) | 7 (8.1/10.7) | 3 (8.5/4.6) | 0 (0.0/0.0) | 1 (50.0/1.5) | 65 (12.4/100) |
| 2007 | 28 (14.0/38.3) | 24 (12.6/32.8) | 12 (13.9/16.4) | 9 (25.7/12.3) | 0 (0.0/0.0) | 0 (0.0/0.0) | 73 (14.0/100) |
| 2008 | 27 (13.5/46.7) | 24 (12.6/40.6) | 7 (8.1/11.8) | 0 (0.0/0.0) | 1 (8.3/1.6) | 0 (0.0/0.0) | 59 (11.3/100) |
| 2009 | 21 (10.5/33.3) | 18 (9.5/28.5) | 15 (17.4/23.8) | 7 (20.0/11.1) | 2 (16.6/3.1) | 0 (0.0/0.0) | 63 (12.0/100) |
| 2010 | 27 (13.5/43.5) | 16 (8.4/25.8) | 12 (13.9/19.3) | 5 (14.2/8.0) | 2 (16.6/3.2) | 0 (0.0/0.0) | 62 (11.9/100) |
| 합계 | 199 (100/38.0) | 189 (100/36.1) | 86 (100/16.4) | 35 (100/6.7) | 12 (100/2.3) | 2 (100/0.4) | 523 (100/100) |

백분율 : 연구분야내의 기간별% / 기간내의 연구분야별%

자인 31.6%로 나타났다.³¹⁾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00년대에는 패션디자인의 요소와 유형 연구주제가 38.0%, 패션미학이 36.1%로 근소한 차이지만 패션미학보다 패션디자인의 요소와 유형을 주제로 한 연구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패션디자인의 요소와 유형을 분석한 연구가 점차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패션디자인 개발 연구주제는 1990년대까지의 연구에서는 연구주제로 따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16.4%를 차지하여 세 번째 주요 연구 과제로 대두되었다.

패션일러스트레이션 연구주제는 1990년대에도 2.7%로 저조하였으며 2000년대에도 2.3%로 지속적으로 낮은 연구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패션디자인CAD 연구주제는 0.4%로 특히 저조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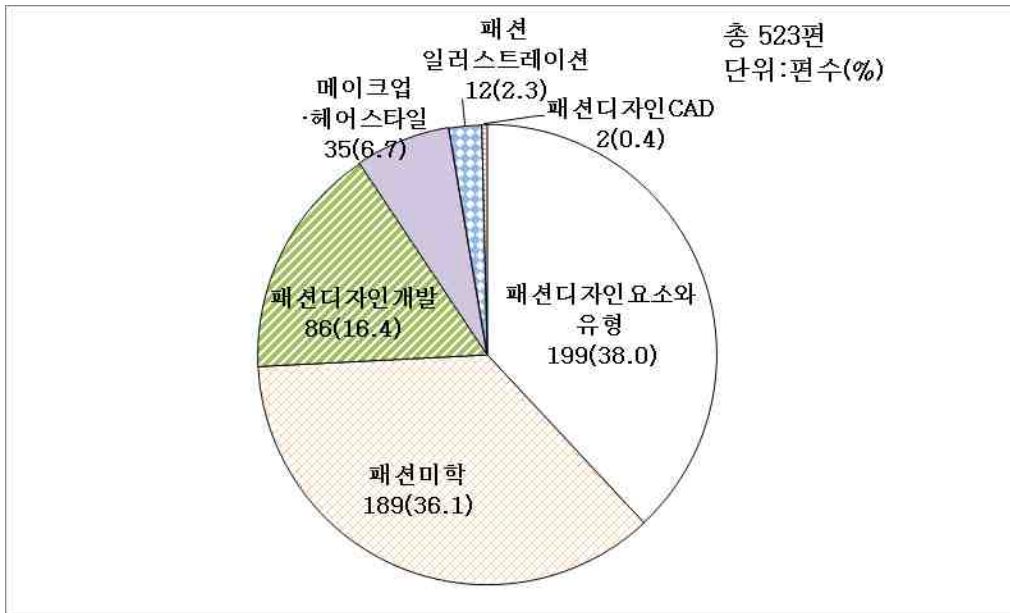
반면에 메이크업·헤어스타일 연구주제는 1990년대

에 2.7%를 차지하였으며, 2000년대에는 6.7%를 차지하였고 2000년대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더욱 많은 비율을 나타내어 향후에도 증가추세가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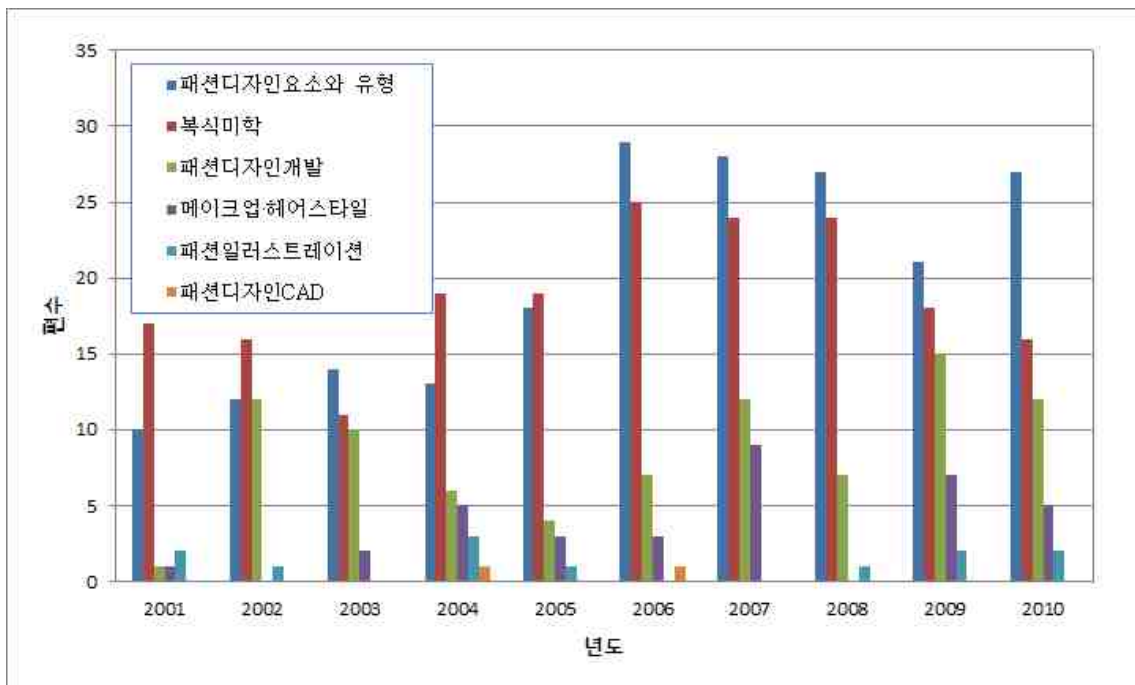
패션디자인·미학분야의 연구는 2000년대 전반기에 201편, 후반기에 322편으로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연구 논문편수가 증가하였다.

패션디자인 요소와 유형, 패션미학, 패션디자인 개발, 메이크업·헤어스타일의 연구주제는 2000년대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더 증가하였으나, 패션일러스트레이션 관련 논문은 후반기에 더 저조하였다.

패션디자인 요소와 유형을 주제로 한 연구는 2006년에 14.5%로 가장 많이 발표되었으며 년도별 비율로는 2008년에 46.7%로 거의 반을 차지하였다. 패션미학은 2000년대 후반기에 논문편수는 증가하였고 2006년에 가장 많은 수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나, 년도별 비율로는 2001년에 5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



〈그림 3〉 패션디자인·미학분야 연구주제별 분포도(2001~2010)



〈그림 4〉 패션디자인·미학분야 연구주제의 년도별 추이

였고 전반기에 후반기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패션디자인 개발을 주제로한 연구는 2009년에 17.4%로 가장 많이 발표되었으며, 년도별 비율로는 2002년에 29.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메이크업 · 헤어스타일은 2007년에 25.7%로 가장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고, 년도별 비율도 12.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IV. 결론

패션디자인·미학분야는 의류학 연구분야 중 최근 가장 연구 비중이 높은 분야로 다양한 연구주제에 따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복식」에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게재된 1089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의류학의 연구분야를 분석하고 패션디자인·미학분야의 세부 연구주제를 분석함으로써 패션디자인·미학분야의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복식」을 통한 의류학 연구는 2000년대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2007년에 최대 게재율을 보였고 2008년부터 게재율이 저하되었다.

2. 2000년대에 가장 많은 연구 비율을 나타내는 연구 분야는 패션디자인·미학분야이며, 총 523편으로 48.0%를 차지하여 디자인분야와 창의성을 중요시하는 시대적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3. 복식사, 패션마케팅 분야가 그 다음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며, 피복과학 분야의 연구비율이 가장 낮았다.

4. 패션디자인·미학분야를 세분하면, 패션디자인 요소와 유형, 패션미학, 패션디자인 개발, 메이크업·헤어스타일, 패션일러스트레이션, 패션디자인CAD 등으로 연구주제를 분류할 수 있다.

5. 패션디자인 요소와 유형의 연구주제가 199편 38.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패션미학, 패션디자인 개발의 순이었다.

6. 패션디자인 CAD 연구주제가 가장 조저하였으며, 메이크업·헤어스타일 연구가 증가 추세를 나타내었다.

참고문헌

- 1)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산업지도] 12. 화학섬유”, 자료검색일 2011. 12. 10, http://magazine.hankyung.com/business/apps/news?popup=0&nid=01&c1=1003&nkey=2010070600762000131&mode=sub_view
- 2) “한국 섬유산업연합회 김동수 부회장 - 국내 섬유산업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 자료검색일 2011. 12. 10, <http://kr.avingnews.com/news/view.php?articleId=207211>
- 3) “韓 섬유수출 점유율 순위 하락세”, 자료검색일 2011. 12. 1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5446151>
- 4) “10대 수출상품 변화추이”, 자료검색일 2011. 12. 10, <http://blog.naver.com/dstar4/120055209960>
- 5) 정찬진 외 (1991), 한국 의류학 연구의 현황과 재조명: 1959-1990, *한국의류학회지*, 15(1), pp. 28-37.
- 6) 김정호 (1999), 90년대(1990~1998) 한국 의류학 연구의 현황 - 한국의류학회지와 한국복식학회지를 중심으로-, *복식*, 46, pp. 133-142.
- 7) 나수임 외 (2000), 한국 의류학의 연구경향분석(1991-1999), *복식문화연구*, 8(6), pp. 853-863.
- 8) 유혜경 외 (1994), 한국의류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및 인용된 참고문헌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18(5), pp. 692-703.
- 9) 이미숙 (2002), 한국복식학회지 ‘복식’에 게재된 논문의 내용 분석-창간호(1997)부터 51권 8호(2001)까지-, *복식*, 52(4), pp. 97-109.
- 10) 김미자 (1990), 한국복식의 30년간 연구동향(1958~1989), *복식*, 15, pp. 55-61.
석·박사 학위논문과 대학연구소 학술지를 분석하였다.
- 11) 김효숙 (1991), 의복구성분야에 관한 연구논문의 현황 및 재조명, *생활문화·예술논점*, 14, pp. 103-114.
한국복식학회지, 건국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연구보고(창간호~1990, 12), 가정학회지, 의류, 복식, 인간공학 회지를 분석하였다.
- 12) 이영혜 이인자 (1996), 복식사회·심리학분야의 연구경향분석 I (1974~1994), *복식*, 30, pp. 19-40.
- 13) 이유리, 이미영 (2007), 패션마케팅 분야의 4년제 대학교육 과정과 「복식」지 연구동향 비교, *복식*, 57(5), pp. 123-139.
- 14) 나수임 외, *op. cit.*, p. 69.
이미숙, *op. cit.*, p. 101.
- 15) *Ibid.*, p. 100.
- 16) 유혜경 외, *op. cit.*, p. 694.
- 17) 정찬진 외, *op. cit.*, p. 36.
- 18) 이미숙, *op. cit.*, p. 101.
- 19) *Ibid.*, p. 101.
- 20) 나수임 외, *op. cit.*, pp. 69-70.
- 21) 이유리, 이미영, *op. cit.*, p. 133.
- 22) 이미숙, *op. cit.*, p. 101.
- 23) 김정호, *op. cit.*, p. 140.
- 24) 나수임 외, *op. cit.*, p. 68.
- 25) *Ibid.*, p. 72.

- 26) 정찬진 외, *op. cit.*, p. 35.
- 27) 이미숙, *op. cit.*, p. 101.
- 28) 정찬진 외, *op. cit.*, p. 33.
- 29) 이미숙, *op. cit.*, p.101.
- 30) 정찬진 외, *op. cit.*, p. 34.
- 31) 나수임 외, *op. cit.*, p. 70.